

다산포럼

1987,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김 정 남
언론인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 별내에 있는 범하(凡下) 이돈명(李敦明) 선생 묘소에 다녀왔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그날이 바로 이 변호사의 서거 7주기 날이었다. ‘인권변론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이 변호사와 나와는 남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다.

1986년 5월 3일의 인전 사태로 당시 많은 사람이 수배되어 쫓기고 있었다. 그때 이부영이 내게 찾아와 은신처를 부탁했다. 서둘러 마련한 것이 고영구 변호사의 집이었다. 고 변호사는 “거리에 나가 직접 민주화 투쟁을 대놓고 못 하는 것이야 부끄럽지만 그만 일이야 왜 못 하겠냐”면서 선전하 받아 주었다. 이따금 밖에서 만나면 이부영의 신수가 뒀했다.

이돈명 변호사 감옥 간 사연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부영이 나를 찾아와,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있던 곳을 고영구 변호사 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심각하게 물어왔다. 고 변호사는 팔십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데다 그 부인이 신경성 위경련을 앓고 있어, 만약 자신이 감옥에서, 고 변호사는 그것이 죄송스러워 불기 없는 냉방에서 그해 겨울을 냈다.

이돈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부영을 숨겨 준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진술했다.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가톨릭 신자로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을 놓고는 무척 괴로워했다. 1987년 5월 출감한 뒤에는 6월 항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뒷날 고영구 변호사가 국정원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가 이부영을 숨겨 준 것을 집요하게 트집 잡았다.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는 법인 은닉 혐의로 연행되고, 나는 공개 수배되는 몸이 되었다. 고령과 명망으로 구속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이 변호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나는 이 변호사택에서 그날 TV 뉴스로 들었다. 그날 밤, 경찰이 온 집 안을 포위하고 수색했다. 나를 쫓으러 왔을 것이 분명한 그들을 나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가까스로 따돌렸다.

다음날이던가, 나는 남아 있는 인권 변호 3인방인 조준호·홍성우·황인철과 고영구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고 변호사는 자신이 스스로 나가 모든 것을 밝히고 들어가겠노라 했고,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법인 은닉 혐의를 시인하고 구속된 이 변호사를 그들이 순순히 풀어 줄 리 없다면, 두 사람이 구속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구속되

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울고 있었다. 결국 이 변호사는 감옥에서, 고 변호사는 그것이 죄송스러워 불기 없는 냉방에서 그해 겨울을 냈다. 이돈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부영을 숨겨 준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진술했다.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가톨릭 신자로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을 놓고는 무척 괴로워했다. 1987년 5월 출감한 뒤에는 6월 항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뒷날 고영구 변호사가 국정원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가 이부영을 숨겨 준 것을 집요하게 트집 잡았다.

전설이 된 전병용 최후진술

이부영이 고 변호사택으로 은신처를 옮기기 전에는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그 가운데는 연희동 전병용의 집도 있었다. 그것이 발각돼 전병용은 나보다 먼저 법인 은닉 혐의로 쫓기고 있었다. 전병용은 “교도관의 인권 없이 재소자의 인권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도관의 처우 개선 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뒤 자신의 집을 민주 인사들에게 개방해 돕고 있었다. 나는 한때 그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7년 3월 중순, 나는 미국에 이민 가 있던 6·3사태 연세대 주역 이영철이 와서 그와 함께 남부터미널 인근의 유원호텔에서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전병용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전병용은 안 그래도 꼭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특달같이 달려와 내게 전한 것이 ‘우촌(友村) 보게’로 시작하는, 감옥에서 보낸 이부영의 편지였다. 나에게 그 편지를 보낸 하루인가 이를 뒤인 3월 17일, 전병용은 체포되었다. 6월 항쟁이 승리로 끝날 무렵, 전병용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의 최후진술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어쩌면 지금쯤 나는 어느 교도소의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징역살이를 하는 수많은 노동자·지식인·민주 인사들을 만나면서 나는 부패한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억압과 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곤 하는 저 억울한 민중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결심을 서서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부영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수행하겠습니다.”

입 사원을 뿜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는 잔인한 현실이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하는 방법을 포함한 많은 ‘배움’은 내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사회 교육 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더 나아가서는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더해 어려서부터 바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느덧 나는 평균적인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곧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 ‘진절할 사회적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너무 큰 꿈이지만 이 욕심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또 그 만큼 나를 성장시킬 ‘진절할 선생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춘 특·특



정 지 훈
조선대 법과대학 4학년

인생 선택들은 말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의무 교육 시기의 배움은 곧 공부여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다 인출이었다. 그 시절 과목마다 어렵고 암기할 것만 썰여가니 공부라는 ‘배움’은 재미없고 싫기만 했다.

대학생이 되어 비로소 직접 어떤 결과와 결론을 짓는 기쁨, 끊임없이 스스로 배워가는 즐거움을 알았다. 하지만 전공 공부의 실용성과 응용 범위에 대해 부족함을 느꼈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 했던 공부는 학문적 깊이가 아닌 획일화된 평가의 대상이었다. 사회는 집요하게 더 다양한

배움에 대해서

고 많은 배움을 요구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면서 문득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에 의문을 가졌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따르는 것이 곧 취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배운 것”뿐인 청년들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회 간의 어긋난 현실을 보며 나는 왜 이런 교육 과정일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하기 전, 갖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근로 계약서를 쓸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운 적 없는 계약서 작성법을 처음으로 접했고 관련 법이나 절차 같은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결국 그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때, 사회는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을 뿐 다시 격지 말라는 취지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옛날 일이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법을 공부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전히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해진 과정대로 밟아온 배움들이 취업이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 영어로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육 과정은 듣기, 쓰기, 말하기에만 점수를 매긴다.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을 의사소통이 아닌 평가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사회교육에 의존해야 했다. 결국 정규 학교만 졸업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다른 관점으로 사회는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인재를 받아들이는 책임도 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보완할 수 있어야 완벽한 교육 과정이 아닐까? 개인이 모든 걸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르치는 최소 비용조차 아까워한다. 기업들은 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신

기 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이해하는가



진 용 주
작가·콘텐츠 기획자

광주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음악극 ‘푸른 수염의 시간’ 공연을 두 번 보았다. 팔십분석 두 번, 대단한 일백육십분이었다. 서울에 돌아온 그 주일부터 ‘푸른 수염’에 대한 글들을 찾아 읽었다. 이 음악극에 모티브를 준 사를 페로의 ‘푸른 수염’과 벨라 바르토크의 오페라 ‘푸른 수염의 성’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공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독서는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자료들은 넘쳐지만 무엇을 읽어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페로와 바르토크는 희미한 참조점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푸른 수염의 시간’에 별다른 자극을 남기지 않았다.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 ‘푸른 수염’이나 카트린느 브레이아의 영화 ‘푸른 수염’이 그랬듯 ‘푸른 수염의 시간’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

도움이 된 것은 공연 브로셔였다. 거기에서 작가의 말과 음악 감독의 말과 연출의 말을 여러 번 읽었다. “이 음악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푸른 수염의 이야기를 되풀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바탕에 놓인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질문을 담으려 했다”고 한다. ‘푸른 수염의 시간’에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넘실댔다. 피할갑의 비밀을 안고서도 살고 싶은 이가 있고, 그 비밀을 발견하고 살(아남)고 싶은 이가 있다. 이야기의 기본은 푸른 수염과 그 아내인데, 공연에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둘은 돌이면서 하나이고 또 더 많은 존재들이었다. 무용수들과 악사들은 서로 겹치고, 바퀴 연기하고, 혹은 한 몸이 수많은 운명과 목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누가 누구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춤추는 세 명이 각자의 고정된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인지, 악사와 가수들도 덩달아 어떠한 존재들로 의인화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렸다. 의도된 혼란이 극을 일관했다.

음악감독은 “각자가 가진 삶의 무게만 큼 이 작품을 받아들이 주셨으면 합니다.”고 말한다. 연출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무대 퍼포먼스는 어떠한 시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순간순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설명하

다. 결국 혼란의 매듭을 푸는 것은 관객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입에 발린 소리 가 아니다. 몇십 미터가 넘도록 길게 짜인 그 무대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그를 따라 빙 둘러선 가변 무대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의 일부분을 자기화할 수 있었다. 조명과 무대 미술이 만들어내는 무대의 여러 모습들은 앉은 자리에 따라 달리 보였다. 노래 소리와 악기 소리는 공평하게 분배되었을 테지만 그들의 퍼포먼스는 거리에 따라 보이지 않거나 작거나 희미했다.

춤은 더 그러했다. 천정에서 내려온 피의 드레스를 입고 장운나가 춤을 추는 몇 분간을 정면에서 마주보던 순간, 행복하면서 공명해졌다. 다른 구역의 자리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걸까. 내가 보듯이 운명의 격투라는 실감이 날까. 생각하다 깨달았다. 아, 완전히 다른 느낌이겠구나. 그것은 그저 보는 위치에 따른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다르게 심어져 있는 것이라리 싶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푸른 수염 이야기를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용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가? 고집불통. 자기 자리에서 제가 상상해온 바대로토 그렇게 한다. 제 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제 식으로 이해한다. 이야기가 대

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 않다. 오해가 우리의 디폴트다.

‘푸른 수염의 시간’은 앉은자리 하나로 그것을 깨우쳐 주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춤을 추어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다. 저것은 푸른 수염인가, 아내인가, 혹은 ‘나’인가? 소리로는 깨우쳐 주었다. 소프라노와 경기민요 전수자의 구음이 서로 교차하고, 첼로와 아쟁이 그러하고, 피아노와 대금, 피아노와 멜로디온이 경쟁하고 따라하고 혼자 튀어나가다 다시 섞이면서 가르쳐 주었다. 이 의도된 혼란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다른 자리에 가보는 것이다. 다른 자리에 서서(앉아서! 누워서!) 상상해보는 것이다.

공연장의 한쪽 벽을 덮고 있던 커튼이 열리고, 큰 문이 열렸다. 그곳으로 장운나가 뚝뚝뚝 걸어나갔다. 김봉수는 문쪽은 벽, 혹은 제 인생 전체를 메고 기둥이 걸었다. 무대 저 멀리에선 김재승이 가라앉은 존재가 되어 허우적대고 있었다. 열려 있던 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극장 안에 일순 냉기가 돌았다. 다시 묻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허우적대고 있는 저이인가, 기둥이 걷는 저이인가, 문을 연 저이인가. 자주 다른 자리에 가보면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재공연을 기대한다. 나의 다음 자리는 어디인지 궁금하다.

社 說

받아 놓고도 안 쓴 예산 5년간 1조 원이라니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애써 확보하고도 안 쓴 탓에 반납한 예산이 5년간 무려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 예산’이라 하는데,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한 해 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불용 예산은 시교육청 4238억 원, 도교육청 4804억 원으로 총 9042억 원이다. 또한 어렵사리 사업은 착수했으나 문제가 생겨 중단되는 바람에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예산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른다. 예산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양 교육청 모두 인건비·예비비·시설비 등으로, 매년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산 불용은 개개인의 직·간접적인 피해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교육청에 대한 감시 및 저항도 약하다. 이 때문에

양 교육청은 예산 불용을 당연시하는 듯하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예산타령을 하다가도 정작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반납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가.

예산 불용의 반복은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기존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예산에 액수만을 늘리는 관행(?)때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원이나 보상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한 해 반납하는 불용액이 1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주먹구구식 살림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불용 예산은 다시 사용할 수도 없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예산 총액을 축소하는 필수가 된다. 예산 운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막바지 사랑의 온도탑 조금 더 달궈 주세요

사랑의 온도탑에도 한파가 몰아친 것인가. 나눔 캠페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수은주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모금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82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도 낮은 수치다. 모금액도 목표액 97억 원에서 17억 원이 부족한 8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은 19년 연속 100도 달성예 고비를 맞았다. 지난해 전남예산 목표액을 약간 초과한 83억3300만 원을 모금해(102도) 18년 연속 100도 달성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모금액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한새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한반도기는 지난 1991년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다. 애초 이 깃발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나(1989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 때 합의) 단일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 때 또 다시 ‘한반도기’를 볼 수 있게 됐다. 남북이 선수단 공동 입장시 상징 깃발로 한반도기 사용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새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한반도기는 지난 1991년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다. 애초 이 깃발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나(1989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 때 합의) 단일

팀 구성 실패로 무산됐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지바에서 열린 이사회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한반도기는 또한 같은 해 5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을 위해 사용됐고,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2007년 정중 동계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아홉차례의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 남북 공동입장에서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휘날렸다. 그러다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라졌다가 이만해 11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남북 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해

은 48.5%에서 43.7%로 줄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목표액 달성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지난해에 비하면 더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96.2도(모금액 50억 원)를 가리키며 목표액 달성까지 1억 원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13도(48억 원, 목표액 42억5000만 원)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모금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홀몸노인·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소외 계층의 긴급생계·의료비를 비롯해 장애인 가정 환경개선사업, 월동난방비, 교육·급식·자립비 지원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전액 지원된다. 그런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온정이 넘쳐나 차가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한다.

無 等 鼓

한반도기

이사회가 선수단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한반도기는 또한 같은 해 5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을 위해 사용됐고,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2007년 정중 동계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아홉차례의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 남북 공동입장에서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휘날렸다. 그러다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라졌다가 이만해 11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남북 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